

“또 줄세우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부 대학만 구제 ‘반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국회 통과 미선정대 절반, 예산 증액 없이 구제 “예산 나눠 갖기... 사업비 증액해야”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미선정 대학 중 절반 가량을 관련 예산 증액 없이 구제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대학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미선정 대학 전체가 아닌 절반만 구제한다는 점에서도 “대학을 또 줄세우기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15일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 대학 확대를 위한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4년제와 전문대 각각 160개교·111개교 증가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 중 일부 대학이 구제될 전망이다.

이미 실시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해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서 4년제는 160개교로 기존보다 13개교를, 전문대는 111개교로 14개교를 각각 늘



성신여대 구성원들이 지난 8월 말 성신여대 돈암동 수정캠퍼스 운동장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성신여대

리는 것으로 의결됐다.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중 50%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총 285개교 중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 97곳 등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미선정된 52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수도권 명문대학으로 꼽히던 인하대를 비롯해 서울권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며 대학가는 물론 지역사회의 반발도 컸다. 미선정 대학들이 법적 소송을 예고하는 등 3여 개월 진통이 이어져 왔으며, 결국 국회 새해 예산안에서 구제방안이 반영된 것이다.

제도전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예결소위에서는 기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이용해 구제 대학을 선정하는 방안과 구제 대학 선정을 위해 별도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미 해당 사업비 분배를 위한

진단이 이뤄진 상태고, 대학들이 평가 피로를 호소해 온 만큼 별도의 추가 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학가 중론이다.

◆예산 추가 없이 기존 예산 ‘나눠 갖기’...탈락 대학 중 절반만 구제 ‘또 줄세우기’ 비판

이번 교육위 소위 의결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학교당 지원액은 줄어들게 된다. 예산 증액이 아닌 기존정 대학에 분배될 예산을 미선정 대학에게 나눠주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기존에는 총 147개교에 50억원씩 배분되기로 했지만, 지원대학이 13개교 늘면서 160개교에 45억9300만원씩 나누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는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에 제도전 기회를 부여한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기존 예산에서 나눌 게 아니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244개교 지원 금액이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

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16일 공동의견문을 내고 “현재 2022년 예산 정부안은 일반재정지원 선정대학 244개교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는 현재 국에서 논의 중인(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대해,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탈락한 52개 대학 모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회장단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52개 대학 모두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 있는 대학들인데, 이 대학들 일부에만 일반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미선정 대학 52개교 전체에 대해 제도전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도 “정부가 대학을 평가해 줄세우기식으로 예산을 나눠주며 대학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구제책마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을 또 줄 세우고 있다”며 “이는 이번에 또 다시 미선정되는 대학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과기대-엔비디아

AI 개발 전문가 양성 ‘맞손’

엔비디아, 교육과정 크레딧 제공 과정 이수시 DLI 공식 인증서 수여



GPU 부트캠프 웹페이지 화면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엔비디아(NVIDIA)와 인공지능 연구 및 실용적인 교육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고 16일 밝혔다.

엔비디아는 서울과기대와 협력해 딥러닝 인스티튜트(DLI) 훈련 및 교육 과정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고, GPU부트캠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부트캠프는 단기간에 집중해 코딩 지식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및 교육기관이다.

이번 협력으로 서울과기대는 엔비디아의 컴퓨팅 자원 및 엔지니어링 인력의 활용을 통해 관련 교육 및 연구를 촉

진할 수 있게 됐다. 또, DLI를 통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딥러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루는 강사 주도형 워크숍을 12월 4일 서울과기대에서 진행한다.

서울과기대 학생들은 딥러닝 개발의 기초부터 심화 과정에 이르는 실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과정을 이수하면 엔비디아가 발급하는 DLI 공식 수료 인증서를 수여받는다. /이현진 기자

한신대 ‘경기도형 취업브리지’ 참가자 선발

빅데이터융합서비스 교육 제공



‘2021년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신대

한신대학교는 ‘2021년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관련 참여학생 58명을 선발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신대는 지난 10일부터 ‘2021년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비교과 선이수 교육을 시작했다. 모든 교육과정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앞서 한신대는 지난달 26일 ‘2021년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

최종 선정돼 참가 학생을 모집, 총 64명의 학생이 신청해 58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이현진 기자

해외 일자리 발굴 ‘SM 챌린지 e-포트폴리오’

동국대

김용길 대표, 법대 1억 쾌척

상명대, 해외 취업 희망 학생 관리

상명대학교는 대학이 직접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해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생 관리 시스템 ‘SM 챌린지 e-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해외 취업 기회 제공 ▲글로벌 취업환경 정보 제공 ▲취업 코칭 및 교육 ▲사후 관리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학생이 ‘SM 챌린지 e-포트폴리오’ 시스템에 접속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취

업에 관한 상담과 지속적 관리를 진행한다. 시스템에 입력된 ▲희망 직무 ▲전공 ▲자격증 ▲교육 과정 이수 현황 ▲인턴 및 아르바이트 경험 ▲프로젝트 참가 경험 ▲동아리 등 정보를 통해 희망 직무에 따른 준비도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이번 학기 3명의 학생이 국내 기업의 미국 지사 취업이 결정됐다. 상명대는 이들의 희망 직무와 역량 등을 고려해 기업에 추천함은 물론, 이들의 서류 등 채용 준비를 위한 과정을 지원했다. 취업이 결정된 이후에는 현지에 대한 정보와 정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동국대학교는 김용길 제주 골드윈호텔앤스위트 대표(사진)가 법과대학기금으로 1억 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동국대 법학과(61학번)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김 대표는 현재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특급호텔 골드윈호텔앤스위트를 경영하고 있다. 모교와 학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그는 지난 1992년부터 기부를 시작했다. 이번 기부 외에도 지금까지 총 1억6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교에 전달했다.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연구자, 세계 과학자 리스트 올라

중앙대

김자호 회장, 의료원 1억 기부

대전·충청 사립대 중 가장 많은 12명

순천향대학교가 최근 국제저널 ‘엘스비어’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발표한 ‘최상위 2% 세계 과학자 리스트’에 총 12명의 연구자가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과 업적을 인정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최상위 2% 세계 과학자 리스트’는 22개의 과학 분야, 176개의 세부 분야별로 최소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전 세계 연구자 중 우수 학술논문 인용지수 ‘SCOPUS’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산출된 논문 피인용도에 따른 영향력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한다.

순천향대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최상위 2% 세계 과학자 리스트’에서 순천향대는 대전·충청지역 사립대 중 가장 많은 연구자가 이름을 올렸다. 연구

자의 생애 업적 기준으로는 ▲김대영(화학) ▲남윤영(컴퓨터공학) ▲유일선(정보보호학) ▲이병국(예방의학) ▲이병택(재생의학) ▲장기현(영상의학) 등 6명의 연구자가 상위 2%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당해 연도 기준으로는 ▲김대영(화학) ▲김성렬(환경보건학) ▲남윤영(컴퓨터공학) ▲박성희(간호학) ▲유일선(정보보호학) ▲이병국(예방의학) ▲이병택(재생의학) ▲이승홍(의약공학) ▲이은영(내과학) ▲이종순(의생명융합학) ▲이태훈(내과학) 등 11명의 연구자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김대영, 남윤영, 유일선, 이병국, 이병택 등 5명 교수는 두 개 기준에 모두 포함돼 순천향대는 총 12명의 연구자가 ‘최상위 2% 세계 과학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현진 기자



김자호(㈜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사진)이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중앙대광명병원 건립을 위해 중앙대의료원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중앙대학교는 15일 중앙대병원 중앙관 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을 통해 김 회장이 1억원의 건립기금을 약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흥창권 중앙대의료원장을 비롯해 이한준 중앙대병원장, 이철희 중앙대광명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중앙대 동문이다. 1965년 중앙대 건축학과에 입학해 1983년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한 김 회장은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중앙대 건축공학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이현진 기자